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우울 수준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은모¹, 최효식^{2*}

¹영남대학교 교양학부, ²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Latent Profiles of Perceived Changes and Difficulties in Single-Parent Family: Focusing on Depression Level

Eun Mo Yeon¹, Hyo-Sik Choi^{2*}

¹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²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한 차별적인 특징을 보이는 잠재집단을 탐색하고, 확인된 잠재집단에 한부모의 배경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확인된 잠재집단에 따라 한부모의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8 전국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자료의 2,500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잠재프로파일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8개 항목에 대한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한 잠재집단은 '양육 안정 집단', '보통 집단', '경제적 안정 집단', '잠재적 위험군 집단'의 4개 잠재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한부모의 배경변인 중 학력보다는 성별과 경제적 측면의 정부지원유형 및 취업 여부가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성 한부모, 미취업, 저소득지원가구 일 때 잠재적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집단에 따라 한부모의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군 집단이 양육 안정 집단, 보통 집단, 경제적 안정 집단보다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 된 후 한부모가 겪는 변화 및 어려움의 모습은 다를 수 있으며,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지원이 제공될 때 한부모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latent groups regarding the changes and difficulties after becoming a single parent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in the backgrounds and depressive levels according to each group. The data of 2,500 single parents from the 2018 Single Parent Family Survey were analyzed by Latent Profile Analysis (LPA). LPA indicated four-profile groups: 1) parenting stability group, 2) normal group, 3) economic stability group, and 4) potential-risk group. Its determinants included gender and economic status, including government funding type and employment status rather than academic status. Specifically, female single parents with an unemployed or low-income support household were more likely to be linked to the potential-risk group. In addition, the potential-risk group showed a higher depressive level than the parenting stability group, normal group, and economic stability group.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distinguished interven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can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single-parent family support policy.

Keywords : Perceived Changes and Difficulties in Single-Parent, Background, Depression, Latent Profile Analysis, Latent Group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e.ac.kr

Received March 8, 2021

Accepted June 4, 2021

Revised March 30, 2021

Published June 30,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부모 가정은 양부모 가정보다 양육 및 경제적 부담 [1] 등에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향성이 있다. 한부모가 된 이후 한부모가 경험하는 변화 및 어려움은 자신의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자녀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2, 3]. 경험적 연구 또한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아동, 청소년 간의 학교생활적응[4], 비행수준, 부/모 애착, 또래애착[5], 대인관계, 정신건강[6], 학업성취[7], 부주의[8], 반추[9]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많은 연구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 또는 극복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한부모가 된 후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한부모가 된 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대다수 변인 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 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의 특징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 될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 된 후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유형화할 수 있다면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에 기초하여 한부모가 된 이후의 변화 및 어려움 특성에 따라 어떤 형태의 잠재집단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한부모가 된 이후 한부모는 삶 전반의 변화 및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향성이 있다. 임세와, 박주혜(2018)[10]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은 경제적 측면, 직업 선택적 측면, 자원의 부족, 정서적 측면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현석, 진미정, 도유록(2014)[11]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학부모들은 가족 부양,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혼자서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 성미애(2020)[12] 또한 남성 한부모는 한부모가 된 이후 부모역할, 건강, 경제적 측면, 친인척 관계 등에서 어려움과 변화를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한부모는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며[13], 일-가족 갈등은 양육의 어려움을 가중한다. 그리고 여성 한부모는 여성 양부모보다 불건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은 한부모 가정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이며, 한부모 가정은 빈곤에 취약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15]. 한 종단 연구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소득 수준은 3년간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여성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 비빈곤층 집단보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7]. 그리고 남성 한부모와 여성 한부모 간 경제적 어려움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18]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19]가 혼재되어 있다.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은 한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다. 한 예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 성취를 예측한다[20]. 여성 한부모 가정의 소득은 자녀의 학교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방임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남성 한부모와 여성 한부모 간에는 한부모로 경험하는 변화 및 어려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먼저 가사 노동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김외숙, 박은정(2018)[21]에 따르면 여성 한부모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 한부모 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남성 한부모는 교육 영역에서의 배제의 위험이 높은 반면, 여성 한부모의 경우 노동 영역에서의 배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한부모의 우울 수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23],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24]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한부모는 일반적으로 양부모보다 낮은 정신 건강 수준을 보이며, 우울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여성 한부모와 남성 한부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김정란, 김혜신(2014)[23]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한부모의 경우 사회적 차별경험, 남성 한부모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수인, 임애덕(2007)[26]은 남성 한부모의 경우 자녀 스트레스, 여성 한부모의 경우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우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한 차별적인 특징을 보이는 잠재집단을 탐색하고, 확인된 잠재집단에 한부모의 배경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확인된 잠재집단에 따라 한부모의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한 잠재집

단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 2) 확인된 잠재집단 분류에 한부모의 성별, 학력, 정부지원유형, 취업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가?
- 3) 확인된 잠재집단에 따라 한부모의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8 전국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부(주관 기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전담 기관)의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조사 지침서에 따르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2018년 8월 ~ 10월), 표본 크기는 총 2,500명이다[27].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2,500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한부모 배경 변인

한부모의 성별, 학력, 정부지원유형, 취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8 전국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였다. 성별은 남성(0), 여성(1), 학력은 중졸 이하(0), 고등학교(1), 전문 대학 (2~3년제)(2), 대학교 (4년제 이상) 이상(3), 정부지원유형은 저소득지원가구(0), 일반가구(1), 취업 여부는 미취업(0), 취업(1)이다.

2.2.2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2018 전국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자료'에서 제공하는 8 문항을 사용하였다. '한부모가 된 후 귀하는 다음의 변화를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다. 8개 문항은 ① 경제적 어려움, ② 부와 모의 역할 혼자서 감당, ③ 집안일 부담 증가, ④ 형제/자매/친척과 멀어짐, ⑤ 건강 상태 악화, ⑥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⑦ 자녀와 긴밀해짐, ⑧ 일가친척으로부터 자유로워짐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27].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720$ 이다.

2.2.3 한부모 우울

한부모의 우울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018 전국 한

부모 가족 실태조사 자료'의 9문항을 사용하였다.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거의 매일(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다. 문항은 '일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피곤감, 기력이 저하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7].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910$ 이다.

2.3 분석 방법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한 잠재집단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Z점수로 변환한 값을 활용하였다. 둘째, 확인된 잠재집단 구분에 한부모의 성별, 학력, 정부지원유형, 취업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R3STEP 보조변수(Auxiliary)를 사용하였다. 셋째, 확인된 잠재집단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CH 보조변수(Auxiliary)를 사용하였다[28]. 통계프로그램은 SPSS 22.0, Mplus 8.3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한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872(34.9%), 여성 1,628(65.1%)이며, 학력은 중졸 이하 182명(7.3%), 고등학교 1,491명(59.6%), 전문대학(2~3년제) 427명(17.1%), 대학교 (4년제 이상) 이상 400명(16.0%)이다. 정부지원유형은 저소득지원가구 1,166명(46.6%), 일반가구 1,334명(53.4%)이며, 취업 여부는 미취업 545명(21.8%), 취업 1,955명(78.2%)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500)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872	34.9
	Female	1,628	65.1
Education	Middle School	182	7.3
	High School	1,491	59.6
	College	427	17.1
	University	400	16.0
Government funding type	Low-income support household	1,166	46.6
	Ordinary-income household	1,334	53.4
Employment	Unemployed	545	21.8
	Employed	1,955	78.2

3.2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한 잠재 집단 분류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한 잠재집단 분류를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시 사용한 문항은 ① 경제적 어려움, ② 부와 모의 역할 혼자서 감당, ③ 집안일 부담 증가, ④ 형제/자매/친척과 멀어짐, ⑤ 건강상태 악화, ⑥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⑦ 자녀와 긴밀해짐, ⑧ 일가친척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 탐색적인 방법으로 잠재집단 수를 2개부터 6개까지 늘려 가며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단, 잠재집단 수를 5개와 6개로 설정한 모형은 추정에 실패하여 잠재집단 수를 2개부터 4개까지 설정한 모형을 비교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것처럼, AIC, BIC, SABIC, Entropy, LMR LRT(p), BLRT(p), 잠재집단별 사례수의 비율, 잠재집단의 고유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잠재집단이 4개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잠재집단의 대표적 특징을 중심으로 명명하였다. 먼저, 잠재집단 1에 포함된 분석 대상자는 280명(11.2%)이다. 잠재집단 1은 8개 항목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이며, 특히 부모 역할 어려움이 적은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양육 안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2에 포함된 분석 대상자는 1,326명(53.0%)이다. 잠재집단 2는 8개 항목 모두 평균 근처의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한부모가 되기 전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3에 포함된 분석 대상자는 71명(2.8%)이다. 잠재집단 3은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부담 점수가 낮으며, 부모 역할 및 자녀와의 관계 측면의 점수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4에 포함된 분석 대상자는 823명(32.9%)이다. 잠재집단 4는 8개 항목 모두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군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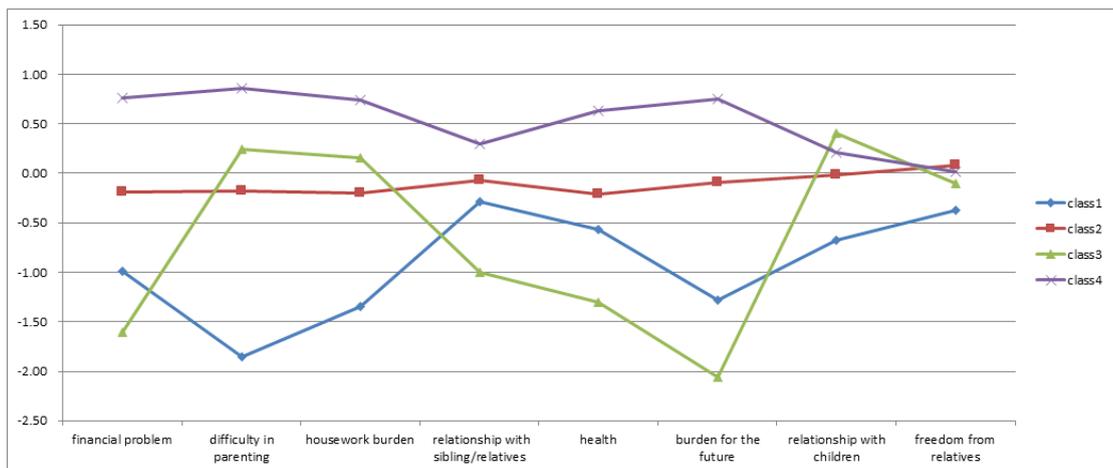
Table 2. Tests of model fit

	2 class	3 class	4 class
AIC	54286.615	53284.560	52850.317
BIC	54432.216	53482.578	53100.751
SABIC	54352.784	53374.551	52964.129
Entropy	.724	.786	.833
LMR LRT(p)	.0000	.0000	.0001
BLRT(p)	.0000	.0000	.0000
class 1(%)	38.1	11.2	11.2
class 2(%)	61.9	55.0	53.0
class 3(%)		33.8	2.8
class 4(%)			32.9

3.3 잠재집단 분류 영향 요인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한 잠재집단 분류에 한부모의 성별, 학력, 정부지원유형, 취업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R3STEP 보조변수를 사용하였다.

첫째, 잠재집단 1(양육 안정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여성 한부모이고, 취업을 한 경우 잠재집단 1보다는 잠재집단 2(보통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한부모일 때 잠재집단 1보다는 잠재집



※ Class 1: parenting stability group, Class 2: normal group Class 3: economic stability group, Class 4: potential-risk group
Fig. 1. Profile plots

Table 3. Three-step results for antecedents of classes

Reference group: Class 1(parenting stability group)						
Variable	Class 2		Class 3		Class 4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Gender(0: male)	.382*	.151	-2.274***	.544	.897***	.160
Education	-.032	.087	-.288	.161	-.110	.093
Government funding type(0: low-income support household)	-.258	.179	-.397	.359	-.986***	.185
Employment(0: unemployed)	.515*	.218	.703	.464	-.048	.215
Reference group: Class 2(normal group)						
Variable	Class 1		Class 3		Class 4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Gender(0: male)	-.382*	.151	-2.656***	.533	.514***	.123
Education	.032	.087	-.255	.148	-.078	.071
Government funding type(0: low-income support household)	.258	.179	-.140	.333	-.729***	.125
Employment(0: unemployed)	-.515*	.218	.187	.442	-.563***	.148
Reference group: Class 3(economic stability group)						
Variable	Class 1		Class 2		Class 4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Gender(0: male)	2.274***	.544	2.656***	.533	3.170***	.532
Education	.288	.161	.255	.148	.177	.154
Government funding type(0: low-income support household)	.397	.359	.140	.333	-.589	.336
Employment(0: unemployed)	-.703	.464	-.187	.442	-.751	.441

* p<.05, ** p<.01, *** p<.001

단 3(경제적 안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여성 한부모이고, 저소득지원가구 일 때 잠재집단 1보다는 잠재집단 4(잠재적 위험군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잠재집단 2(보통 집단)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남성 한부모일수록 잠재집단 2보다는 잠재집단 3(경제적 안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부모이고, 저소득지원가구이며, 미취업인 경우 잠재집단 2보다는 잠재집단 4(잠재적 위험군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잠재집단 3(경제적 안정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여성 한부모인 경우 잠재집단 3보다는 잠재집단 4(잠재적 위험군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잠재집단에 따른 우울 수준 차이 검증

잠재집단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CH 보조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잠재집단 4(잠재적 위험군 집단)가 잠재집단 1(양육 안정 집단), 2

(보통 집단), 3(경제적 안정 집단)보다 우울 수준이 높으며, 잠재집단 1(양육 안정 집단), 2(보통 집단)가 잠재집단 3(경제적 안정 집단)보다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mparisons (With the BCH Procedure) across the four-class profiles on depression

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E.	χ ² (Significant pairwise comparisons)
Depression	Class 1	280	1.462	.036	225.053 *** (3<2=1<4)
	Class 2	1,326	1.421	.014	
	Class 3	71	1.205	.051	
	Class 4	823	1.874	.028	

* Class 1: parenting stability group, Class 2: normal group Class 3: economic stability group, Class 4: potential-risk group
* p<.05, ** p<.01, ***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부모가 된 후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경험하는 변화 및 어려움의 특

징에 따라 고유한 프로파일을 보이는 잠재집단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확인된 잠재집단에 한부모의 배경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확인된 잠재집단에 따라 한부모의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부모가 된 후의 ① 경제적 어려움, ② 부와 모의 역할 혼자서 감당, ③ 집안일 부담 증가, ④ 형제/자매/친척과 멀어짐, ⑤ 건강상태 악화, ⑥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⑦ 자녀와 긴밀해짐, ⑧ 일가친척으로부터 자유로워짐과 관련된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한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4개 잠재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잠재집단인 '양육 안정 집단'은 전체의 280명(11.2%)이며, 8개 항목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이며, 특히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적은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잠재집단인 '보통 집단'은 전체의 1,326명(53.0%)이며, 8개 항목 모두 평균 근처의 점수를 보이며, 한부모가 되기 전후로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가장 작은 비율의 세 번째 잠재집단인 '경제적 안정 집단'은 전체의 71명(2.8%)이며,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부담 점수가 낮으며, 부모 역할 및 자녀와의 관계 측면의 점수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네 번째 잠재집단인 '잠재적 위험군 집단'은 전체의 823명(32.9%)이며, 8개 항목 모두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잠재집단의 특징은 첫째, 한부모가 된 후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는 잠재적 위험군 집단이 32.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부모가 된 후 경제적 측면, 직업 선택적 측면, 자녀 양육, 친인척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등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기 쉽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10-12, 29]. 그리고 한부모가 된 후 상대적으로 적은 어려움을 겪는 안정 집단의 경우 양육 관련 안정 집단과 경제적 안정 집단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안정 집단의 경우 한부모가 된 후 경제적 어려움 및 미래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여전히 부모 역할 수행 및 자녀 양육 등 집안일의 부담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안정 집단의 경우에도 한부모가 된 후 한부모가 겪는 변화 및 어려움의 모습은 다를 수 있으며,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지원이 제공될 때 한부모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잠재집단 분류에 한부모의 성별, 학력, 정부지원 유형, 취업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성별, 정부지원유형, 취업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잠재집단 1(양육 안정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비

교했을 때, 여성 한부모이고, 취업을 한 경우 잠재집단 2(보통 집단), 남성 한부모일 때 잠재집단 3(경제적 안정 집단), 여성 한부모이고, 저소득지원가구 일 때 잠재집단 4(잠재적 위험군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잠재집단 2(보통 집단)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남성 한부모 일수록 잠재집단 3(경제적 안정 집단), 여성 한부모이고, 저소득지원가구이며, 미취업인 경우 잠재집단 4(잠재적 위험군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셋째, 잠재집단 3(경제적 안정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여성 한부모인 경우 잠재집단 4(잠재적 위험군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한부모의 배경변인 중 학력보다는 성별과 경제적 측면의 정부지원유형 및 취업 여부가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여성 한부모, 미취업, 저소득지원가구 일 때 잠재적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은 양부모 가정보다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여성 한부모가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1]. 그리고 남성 한부모보다는 여성 한부모의 경우 더 큰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경향성이 있다[32].

셋째, 확인된 잠재집단에 따라 한부모의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잠재집단 4(잠재적 위험군 집단)가 잠재집단 1, 2, 3보다 우울 수준이 높으며, 잠재집단 1(양육 안정 집단), 2(보통 집단)가 잠재집단 3(경제적 안정 집단)보다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목해서 볼 점은 잠재집단 3(경제적 안정 집단)의 우울 수준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 겪는 우울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측면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부모가 된 후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우울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변인 중심적 접근을 활용하여 한부모가 겪는 변화 및 어려움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본 연구는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할 때 몇 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잠재집단에 따라 어떤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지 확인함으로써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에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는 실재적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기초한 잠재집단을

확인하고, 2차 자료의 한계 때문에 한부모의 배경변인 중 일부를 중심으로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다양한 예측변인을 활용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자료에 기초하여 한부모 기간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잠재집단의 전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J. L. Whisenhunt, C. Y. Chang, M. S. Parrish, J. R. Carter, "Addressing single parents' needs in professional counseling: A qualitative examination of single parenthood", *The Family Journal*, Vol.27, No.2, pp.188-198, 2019.
DOI: <https://doi.org/10.1177/1066480719835343>
- [2] S. E. Oh, H. S. Ki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depression of single-parent householder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31, No.1, pp.207-226, 2020.
DOI: <http://dx.doi.org/10.16881/jss.2020.01.31.1.207>
- [3] Y. J. Choi, "The mediating effect of single mothers family resilience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mental health",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Vol.19, No.2, pp.49-66, 2019.
DOI: <https://doi.org/10.46330/jkps.2019.06.19.2.49>
- [4] S. J. Kim, "A time serial study on the school life adjustment in children and youth from single parent families: A comparison with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8, No.3, pp.101-120, 2016.
- [5] D. H. Lee, "A comparative study on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single-parent adolesc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Vol.42, pp.23-53, 2016.
- [6] H. S. Kim, "The effect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life happiness, mediated by childre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mental health - Multi-group analysis on single-parent and two-parent familie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No.55, pp.113-141, 2016.
- [7] J. Y. Hyun, K. K. Kim,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and at school, and academic achievement: Focusing on varying relationships according to family structur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25, No.2, pp.125-154, 2015.
DOI: <https://doi.org/10.32465/ksocio.2015.25.2.006>
- [8] T. R. Sasser, C. R. Beekman, K. L. Bierman, "Preschool executive functions, single-parent status, and school quality predict diverging trajectories of classroom inattention in elementary 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27, No.3, pp.681-693, 2015.
DOI: <https://doi.org/10.1017/S0954579414000947>
- [9] I. Daryanani, J. L. Hamilton, B. McArthur, L. D. Steinberg, L. Y. Abramson, L. B. Alloy, "Cognitive vulnerabilities to depression for adolescents in single-mother and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46, pp.213-227, 2017.
DOI: <https://doi.org/10.1007/s10964-016-0607-y>
- [10] S. W. Im, J. H. Park, "A qualitative study on single parents' experience of child rearing : The capability approach",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10, No.3, pp.1-28, 2018.
- [11] H. S. Seo, M. J. Chin, Y. R. Do, "A study on parental engagement and the crux of the education for child in single-parent famil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4, No.2, pp.181-201, 2014.
- [12] M. A. Sung, "Factors associated with difficulties single fathers with adolescent children hav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8, No.1, pp.1-15, 2020.
DOI: <https://doi.org/10.7466/JKHMA.2020.38.1.1>
- [13] J. H. Kwon, "Parenting stress experience of single parent a single case study",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Vol.24, pp.53-65, 2020.
DOI: <https://doi.org/10.12972/mpca.20200020>
- [14] C. H. Kang, "Analysis of health inequality in lone mothers",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Vol.30, No.4, pp.297-319, 2016.
DOI: <https://doi.org/10.24210/kapm.2016.30.4.011>
- [15] V. K. Heintz-Martin, A. N. Langmeyer, "Economic situation, financial strain and child wellbeing in Stepfamilies and single-parent families in Germany",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41, pp.238-254, 2020.
DOI: <https://doi.org/10.1007/s10834-019-09653-z>
- [16] H. S. Kim, "The process of the effect of the shift trajectory of single-parent family income on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Youth Welfare*, Vol.19, No.4, pp.159-189, 2017.
DOI: <http://dx.doi.org/10.19034/KAYW.2017.19.4.07>
- [17] H. Y. Choi, M. Y. Kim, "A study on the poverty and the child-rearing difficulty of female single parents with school-aged children - Focused on poverty severity and multi-dimensional factors -",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67, No.3, pp.35-71, 2020.
DOI: <https://doi.org/10.16975/kjfs.67.3.2>
- [18] Y. C. Lu, R. Walker, P. Richard, M. Younis, "Inequalities in poverty and income between single mothers and fat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17, No.1, 135, 2019.
DOI: <https://doi.org/10.3390/ijerph17010135>

[19] D. Y. Bae, M. J. Chin, "Differences in economic conditions of single-parent families : Focu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single-mother and single-father families and their household composi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29, No.5, pp.121-140, 2011.

[20] P. R. Amato, S. Patterson, B. Beattie, "Single-parent households and children's educational achievement: A state-level analysis", Social Science Research, Vol.53, pp.191-202, 2015.
DOI: <https://doi.org/10.1016/j.ssresearch.2015.05.012>

[21] O. S. Kim, E. J. Park, "Time use and time famine in single-parent families: A comparison of single-mothers and fathers",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Vol.22, No.3, pp.1-19, 2018.
DOI: <https://doi.org/10.22626/jkfrma.2018.22.3.001>

[22] A. N. Kim, "Characteristics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by household types in Korea", Family and Culture, Vol.26, No.1, pp.237-265, 2014.
DOI: <https://doi.org/10.21478/family.26.1.201403.009>

[23] J. R. Kim, H. S. Kim, "The effect of variables on depression of single parents family householder -Focusing on parental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19, No.1, pp.143-160, 2014.

[24] Y. H. Roh, S. I. Kim, "Influences of socio-demographics, child parenting hardships and social support on single parents' mental health", Family and Family Therapy, Vol.24, No.2, pp.167-185, 2016.
DOI: <https://doi.org/10.21479/kaft.2016.24.2.167>

[25] K. A. Kong, H. Y. Choi, S. I. Kim, "Mental health among single and partnered parents in South Korea", PLOS ONE, Vol.12, No.8, e0182943, 2017.
DOI: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82943>

[26] S. I. Lee, A. D. Im, "Gender differences of the effects of single parents marital quality, children stress, human relation stress on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41, No.4, pp.128-163, 2007.

[27]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

[28] T. Asparouhov, B. Muthén,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21, No.3, pp.329-341, 2014.
DOI: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15181>

[29] S. G. Ryu, B. N. Choi, "Factors related to parenting stress of single mothers with a preschool-aged child in child facilities for mother and child protection", Culture and Convergence, Vol.41, No.2, pp.1083-1116, 2019.
DOI: <https://doi.org/10.33645/cnc.2019.04.41.2.1083>

[30] H. J. Lee, "Socioeconomic disparities and housing wealth effects of home-owning single-parent and dual-parent households with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ol.28, No.5, pp.49-60,

2017.

[31] H. S. Lee, K. C. Han, G. B. Jeon, "Impact on quality of life of single-parent female head of household economic stres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3, pp.174-183, 2013.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03.174>

[32] J. W. Han, "A research on effectiveness of single-parent family services: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 analysis", PNU Journals of Women's Studies, Vol.24, No.2, pp.159-195, 2014.
DOI: <https://doi.org/10.22772/pnujws.24.2.201406.159>

연 은 모(Eun 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